시나가와 역사관의 정원	
3_01_01 	다실 쇼테키안 쇼테키안은 1920 년대 후반 무렵, 야스다 재벌의 야스다 젠스케 씨가 저택 내에 로쿠소안(지금의 도쿄 국립 박물관 내의 다실)을 본보기로 삼아 지은 다실(다도를 위한 건물)입니다. 쇼테키안은 다카하시 고레키요, 후지와라 긴지로, 네즈 가이치로 등 태평양 전쟁 이전의 정재계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다도회를 연 장소였다고 합니다. 1985 년 시나가와 역사관 개설을 맞아 역사적으로 귀중한 다실을 옛 모습 그대로 남겼습니다.

3_01_02 	수금굴(水琴窟) 수금굴이란, 바닥에 구멍을 뚫은 항아리를 뒤집어서 땅속에 묻고, 그 안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항아리 안에 부딪쳐 되울리는 물소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야스다 젠스케 저택의 수금굴은 오랜 세월 잊혀져 있었으나 1980 년, 시나가와 역사관 건설 시에 재발견되었습니다. 구멍 주위에 물을 방울지게 떨어뜨리고, 대통을 귀에 대고 우아한 수금굴의 울림을 들어 보십시오. 또한 관내에는 버튼을 누르면 수금굴의 음색을 들려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3_01_03 	수혈주거터(복원) 시나가와 역사관 건설 시에 5 세기 말~7 세기 말에 영위된 주거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포함한 유적은 오이카시마 유적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면보다 낮게 땅을 파서 만든 바닥에 4 개의 기둥을 세우는 구멍과 부뚜막이 있습니다.